

“한국불교 희망을 만들어간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착공식 “새로운 포교의 장…군불교 도약 계기”

‘포교의 황금어장’ 군불교에 새로운 역사가 써졌다. 종단차원의 숙원사업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착공식이 지난 1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거행됐다.

지난해 11월 41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선포식을 거행한 이후 1년 만에 봉행된 착공식은 한국불교의 미래 희망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군종특별교구와 본지가 지난 1년간 신축법당불사모연 캠페인을 펼치며 기금을 조성한 결과가 바로 이번 착공식이다. 불과 1년 만에 전체 공사비 120여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무려 47억 원이 답지하면서 불자의 단결력과 금지를 뽐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필두로 전국 교구본사주지, 중앙총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앞장서 이번 불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착공식에는 원로의원 종하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호계원장 범등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혜스님,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성웅스님, 불교신문 사장 수불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 중앙총회 사무처장 성효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으며,

군승전원과 신도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새로 쓰는 군불교 역사를 함께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으므로 특히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군불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착공식은 이 나라 국력을 신장시키고 불교 중흥의 초석을 놓을 중차대한 불사이므로 원만 성취되도록 종단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사부대중도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축면적 5000㎡(1510평)에 지상 1층 단층으로 조성되는 호국연무사는 법당에 3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매년 10만여 명의 젊은 불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초대형 전법도량이 될 전망이다. 군종교구는 오는 201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 앞서 군승의 날 42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열렸다. 법회에서는 군불교 유공자로 불교신문 사장 전·현직 사장 스님이 선정돼 논공을 올렸다. 현 사장 수불스님(안국선원장)과 전 사장 선묵스님(서울 도선사 주지),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이 총무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차호상보
논산=김하영 기자



종단차원의 숙원불사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착공식이 지난 1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거행됐다. 5000명 수용규모의 호국연무사 불사는 201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정화기념사업회 발족한다

정화회관 복원 등 추진…24일 ‘6비구 할복’ 조명 세미나

2012년 통합종단 출범 50년, 올해 제2차 승려대회 50년 및 대법원 6비구 할복 사건 등 정화운동 반세기기를 맞아 정화 정신을 기리는 사업회가 발족한다.

조계종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 등은 가정 ‘불교정화운동기념사업회’ 발기인을 만들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정화기념관 복원 및 불교정화 기념일 제정, 기념사업회 설립 등 3가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그 첫 사업으로 오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전국승려대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50년 전 승려대회의 참여주체 연구’(동국대 선학과 법산스님), ‘조계종의 성립과 배경’(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불교정화운동과 조계종의 현실’(김광식 박사)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현스님은 “종단을 수호하기 위해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순교를 감행했던 중요한 사건이 잊혀지고 종단에서도 그날을 기리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다 몇몇 스님들이 모여 기념사업회를 발기했다”고 밝혔다.

법타스님은 “정화는 추억속의 기억이 아니라 종단과 한국불교를 중

흥할 정신으로 삼아 분위기를 반전하는 계기를 갖자는 취지에서 기념사업회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발기인대표 혜총스님은 “불교정화정신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며 기념회관 복원 등 몇 가지 사업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승려대회는…

1960년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조계사에 모여 정화종단을 보호하기 위해 결의했던 대회를 말한다. 1955년 비구 대처 대표10명으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통해 비구 중심의 조계종이 출범했는데 대처측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대처측이, 고법에서는 비구측이 승소한다.

1960년 1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당시 대표자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종단이 이를 막기 위해 승려대회를 소집했었다. 대

회장 백안스님, 부대회장 청담스님을 비롯한 행원스님, 정영스님, 월주스님 등 종단의 간부들이 대회를 주도했다. 11월24일 문성준스님, 월탄스님 등 6명의 비구들이 몸에 칼을 지니고 대법원 주심 판사실에 들어가 순교를 감행한 이른바 ‘대법원 6비구 할복’ 사건으로 유명하다.

조계사에서 밤을 새고 단식 정진하던 스님들은 순교 소식을 듣고 대법원으로 달려가 농성을 하다 320여명이 경찰서에 연행돼 이중 6명의 비구와,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던 18명의 스님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경신년 동안거 결계법서

“한순간 천지를 태우듯 참선”

다시 동안거 결계를 맞이하였습니다. 석 달의 기간이 차면 결계가 끝나는 해제일이 오겠지만 그 공덕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만리 전체가 하나의 뗏목아래인 듯이 여기면, 오로지 본래부터 참구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대결해야 할 화두만 있을 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인지조차도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하물며 다른 것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참선공부는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순간에 온 천지를 불태워 버리는 공부법입니다.

결제라고 하여 고요한 경계에만 스스로를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활발발한 선기(禪機)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썩은 물에 잠겨있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썩은 물에 잠겨서 썩은 물인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간화선을 공부하려는 남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함에 시끄러운 것을 피하여 고요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귀신의 굴속의 살림살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혹여 이것을 공부라고 여겨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것을 흑산 밑에 앉아서 썩은 물에 잠겨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공부를 제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림법전

조계종 종정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도 죽을 것이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도 죽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면 이것 역시 썩은 물에 잠겨 죽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이란 곤경에 처한 몸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삼동결제동안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해번신(大海番身)한다면

불방탈쇄(不妨脫洒)하리라

바다에서

몸을 완전히 뒤집으면

틀림없이

속박의 때를 벗어나리라.

불기 2554(2010)년 동안거 결계일에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결제

수좌 2200여 명 3개월 동안 몽맹정진

영축·해인·조계·덕숭·고불총림을 비롯해 전국 100여개 비구·비구니 선원이 일제히 경신년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전국 선원에서는 지난 20일(음력 10월15일) 경신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약 22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고 3개월간의 참선 수행을 시작했다.

법전 중정에는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참선공부는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순간에 온 천지를 불태워버리는 공부법”이라며 수좌들의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총림 방장스님들도 법어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6·7면

동안거는 매년 음력 10월15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3개월간 일체 외부의 출입을 끊고 오직 참선수행에 정진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다. 음력 4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는 하안거 정진을 한다. 이번 동안거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LA 관음사를 비롯한 해외 선원에서도 수좌들이 결제에 들어갔다. 국내외 선원 외의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들과 일반 신도들도 각자의 수행 환경에 따라 동안거 정진에 참여한다.

社告

'2011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 **용 모 기간**: 2010년 11월 15일(월)~12월 15일(수)까지
- **용 모 대 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 모 분 야**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시조 부문(각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 **상 금**
 - 단편소설 450만원
 - 시·시조 250만원
- **동화/평론** 각 350만원
- **당선작발표**: 2011년 1월1일 신년특집호
- **접 수 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abc2010@ibulgyo.com
- **유 의 사 항**: 홈페이지(ibulgyo.com) 참조
- **문 의**: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누가 추천하는 상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대한불교조계종이 추천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무료상담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850만 역전의 용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00% 출자 상조

경제적인 상조

서비스도 용품도 사증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불자님을 위한 상조-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지사항 1.종도회가입금 및 환급기준 가. 표준약관 제15조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소비자 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금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환급 제도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마 100%(중국산) * 환급의 제도:방범 및 제복(군내)배안동 나. 관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사:오동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사:오동나무(중국산) 1.8~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가액 *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잔-립컨트(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 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상복별 기본 무료제공 이외 가액 추가(시)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당지역 및 행사사(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유미 추가(시)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임)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관리자신 19,965,615천원 총 고액 환급의무액 15,400,603천원(국민보훈처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회림회계법인) 5.고액환급금의 관리방법 고액환급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